

果然嶺東便의 寺有林보다는 慈心이 생길 만치 되었다 하
 木은 落落連抱의 松、檜、檜木等의 蔚蔚密密하야 蒼空
 을 覆수업다 이 森林이 朝鮮人의 程度에 이만치 茂盛하
 게 되긴은 理由가 있다가 이 山은 由來로 無主空山이 아니었
 고 黃鵬封山이란 名稱과 勢力을 가진 朝鮮에 有名한 山
 林이 었다 感古의 懷를 가지고 野心은 清溪의 淸을 사
 라여 러가지 風致를 구경하며 葛蘿이 山村에 到着하니
 二里의 路를 行하였다 그 곳으로 부러져 차나 가면 左右 山
 谷에서 樹齡數百年의 連抱赤松을 伐採하야 山과 如하
 積置하고 말구타하는 山中機械로 輸出한다 나는 이와가
 이 되었다

처세간 하였다 이 山이 大學演習이 마하기 무렵을 演習
 하는 가 하였더니 아 마도 採伐을 演習하는 가 하였다 葛
 幕으로 부러 一里의 沙泉里에 到着하였다 洞里의 勢
 를 觀察하니 別로 興旺처는 못하나 마 水田도 多을 짓마는
 第一壯觀인 것은 後의 山이 高峻한 곳에 山腰에 누미준
 을 지어 노은 것은 山畑이다 보기도 異常하지만은 강기도
 성어 덩겅다 이것이 즉 一山田의 生命을 이어가는 線路이
 다 오늘은 九里를 行하야 驛跡地方 瑞和 面加田里에 到着
 하야 宿泊을 하기로 하고 旅館을 定하니 午後六時三十分
 이 되었다

廣 積 寺 記 尋

劉 啓 勳

내가 廣積寺(俗稱桃李所)의 이름을 듣고 한 讚가 보
 러 하던 때는 只今으로 부러 九年前 學童시절 인 讀하였
 스나 無時로 循變하는 世態는 二易하게 閑遊의
 餘暇를 잊지 못하고 煩惱의 幻夢中에서 近十回 星霜
 을 一瞬電光가치 보내었스니 而今에 回想하면 昔기

도 하였지만 愛惜한 表情은 山河의 雄大 廣闊함에 도 비
 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다가 이제 다시 못낼 小暇를 憐悻
 하여 年年時時로 宿望이든 雪峯山 廣積寺를 차자 볼
 조호機會를 얻은 나는 넘치는 기쁨에 二易하게 心情은 참
 부어라 形容할 수 업는 境遇이 었다 지난 밤까지 追憶의

분하던 天空은 가 버히 도는 春風을 마저 놀히며 날려
 가고 燦爛灼灼한 陽光은 宇宙萬象을 遍照하야 遠行
 을 祝福하는 듯이 清新하며 輕快한 心骨은 尋春客의 氣
 녀속 조호 志氣를 준다 極히 簡單한 行裝을 收拾하야 崔
 雲山、金雪樵 두 분과 가 치約六百年以上 高麗時代에는
 三千僧侶가 이 절에 集居하야 全國에서 大刹로 名稱하
 든 古寺이니 아 무리 李朝에 이르러서 衰微하였을 망정
 그 餘韻遺蹟이 아 었로 개 의 러나 하면서 새삼같이 臨溪
 어구를 버서나 는 세는 綠色天地에 躑躅花、櫻花가 開
 關하여 千紫萬紅總是 春句을 於焉之謂이 豪唱하
 게 하였다 大自然의 勝景을 노래하는 세 소의 長短을 맛
 취 隱隱한 西天의 雲峰山嶺을 바라 보며 羨望하
 三로 慶城平野의 시원한 氣運을 의 리 뜻코 似洋亭의 美
 소의 상은 險峻한 摩崖은 내가 어릴 적에 갈피 넘은
 옛記憶을 浮다 시자 아 내며 渾然中에 雄壯하코 나
 었다 垂楊陽堤를 지나 五六百兒童을 調弄하코 普通
 學校를 望하코 바라 보며 笑言(蓬谷)을 지나 水洞區域
 에 들었다 老農의 말을 들으면 今年의 農節이 如干
 事인다고 한다 往年에는 寒食前에 보리밭갈이 놀다
 하드니 今年에는 寒食 후까지 出糞하게 되고 요새

에야 耕田播種이 奔忙하야 合점은 농부들의 소모는 양이
 여겨 지게 보인다 우리 一行이 水洞을 지나며 畚畚異
 常한 志氣를 주는 것은 里中에 長高한 直立木이 잇는 데
 이 것을 進士塚라고 한다 緣由는 李朝末 萊頃에 그 洞
 中에서 進士나 先達이 하나나면 舉洞一致하야 이것
 은 우리네의 榮光이라 하며 及其也 誇張의 意味에서 胚
 胎된 말인 자인대 舊時는 每年名節이던 그 것들 中心
 상아 一大遊興場을 排設하고 五音六律 風樂에 應대
 (俗優)를 즐겼었다 하니 一般官民 班常上下階級이 다
 가지는 것이로되 其時 兩班네 들의 豪奢、遊蕩과 濫權
 跋扈한 어느 程度에까지 達極하였을을 可히 想像할
 수가 있다 漸漸中村을 지나 北便을 바라 보니 炎夏에
 避暑하기 조호 뜻한 洞이 잇는 데 두 분이 말하기를 慈
 村의 이라고 하시며 옛적은 勿論 至今까지도 書堂
 生들이 거거나 가 讀書或吟詩를 마지안는다고 한다 아
 사까지 淸涼한 단이 不時에 생명이 가오르며 淸하
 던 필원은 단면에 白蒸氣의 包圍를 하였다

언제나 언제나
속대우면 이내 마음

世上事 다 져키고
저항업시 차저나올제
구태여 白雲暮趁니
그무상 作戲인고

雪峯山 옛 절을
속차저 보옵파저
神靈님 음에외와
어되온가 무뎠더니
막대로 西天가드치고
날히승어 가드라.

一行이塔坪에到達한제는 彌陀十一時이였다. 이곳 地名을塔坪이라하기는 邊邊田中에古石塔이遺存함으로도 判然히일것이지만 只今으로부러限四五百年前에는 이山谷을가로막은平阜한一小橫丘가있었스나 其後川破에 穿여져엄서적다한다. 이塔의層數는本初에七層이였스나 累百年을經過하는동안에 여러번頽落하야 至今僅存한것이三層밖에남지안었다. 野翁의傳說에依하전대

옛날 朱大明의母親이이 절에있을때 그가쓰른匙 著를이塔剎中에 너어두었다하야後人이그수저를 보려고 이塔剎을일었다.
고하나 미덥지못할말인가한다웨그런고하니 故花山先生이말상하시기를
「至今으로부터 한四十餘年前에 내가廣積寺에가 니그절住僧이古匙箸를내어보이면서 이술은 옛날朱大明의어머니가쓰른것이오하고되이며말하 여주드라」

하시른것이 아직도나의記憶에사라지지안호니 그塔剎中에이술이들었기때문에 일었다는것은荒唐之說갓다. 이塔파르西北쪽인지 最初廣積一洞基가있 서 至今도十餘個의큰礎石이남어있음이分明하며 佛說及住持도(後에도르니)그리라고한다.

또그礎石의範圍가廣大함은보아 昔時에繁盛을暗示하야일천우에쓰릿치 三千僧이있었다는것을大綱 斟酌할만하다.

저기요 저기요하기
눈너겨 차졌더니
힐어남은 그적함은

이제겨우 보옵전만
상천중 나들면절은
옛승인듯 심드라.

王님김씨 옛절의에
홍로남은 저石塔아
내집보러 차던손이
물빛이한 현말인가
아서라 物有盛衰나
슬허할들 무엇하리.

그림은 그희움을
형이나 보옵파저
오리조리 차저들저
깃잇은 그눈업고
뜻뜻한 옛리플만이
겨우남아 잇드라.

그리고이洞基에서北方으로한十里許에외이는것이 雪峰山이며 이山上에大池가있다고하는데 至今은 사람의길로한길분분하게막게되지못한다고한다. 이

池水가이만쯤줄기는 數百年前에이 절중물이 吉州 東海面쪽을러지우기때문이라하나 信否는判斷하기 어렵다. 이雪峯山을두르고한傳說이잇스니即

「이제로부터約五百年前에 이절에한老僧이 하르 는놀이나갓다가 아조큰거미(蛛)한아가잇습으로 그것이하도奇異하야 잇던방에너어두고 밤을 맥어길오븐中 그後하르는길으튼거미는업고 난 데업는고승處女가잇습으로 그중은놀라 「당신은 현女子인데 여기를어와잇느냐」고한則 그女子 가말하기를「저는거미의化身입니다」함으로 그老僧은或時點은중들이 보지나아닐가하야남볼때가 다두고 밤을맥의길넛는대 그때말後에그女子의 몸집을본即 배가분부한지라老僧은넛어도異常하 야그緣由를仔細히물은즉 말하기를「事實이은즉 별서옛말前부의말마다지하참은찌이런 잇던美少年이들어와同寢하고 깨어나부들러하면 인차달 아남으로 어되잇는사람인지도몰으깃습니다」함 에 그老僧은好奇心에쓰을어그리연來夜에는바 늘에실을껴어두었다가 그가왔다갈때에 옷깃자 띠에쓰드라」하야 그翌夜에는老僧이식힌대로하고

아침에 본즉 그실이 雪峰山上大池中에 들어간지라
그는 더욱 이상하여 신을 잡어 담기니 擘鯉魚(即龍)
한 마리가 나왔다가 물우물어 갔다 其後黑剛만에
果然 산아히 물나었는데 부르짖으면 흰 주먹을 펴보

니 손바닥에 「明天子」라는 새 글자가 있겠다 이사
람이 後에 長成하여 明國太祖가 되었다」
고 한다.

不思議

神과接語한이야기

李古鏡寄

이가차希有한이야기를 내가 雪蘭氏의 재를 잊습
니다 氏가 大正六年春 慶北永川郡銀海寺에 있습
에 大邱桐華寺末寺把溪寺로 부어 오느사담의傳言
을 들은즉 「성팔」이란神이 劉氏란老婆를隨從하여
把溪寺에住하고있는데 사담과接語하는것이 普通
人과無異하다함으로 冥實地를訪見코자하니 氏는그
處公務에拘碍되어 얼마있다가 夏期放學時를利用
하여갔다함이다 그래서 七月二十二日早朝에 行
裝을收拾해가지고 發程할때에 同伴으로있던 楊
渾虛 崔鐵圭兩氏가 또한同行이되야 그날把溪寺
四十里를當到했드랍니다 寺院拜觀을若干하고 當

寺雪坡和尙方에投宿하고있스면서 來意를말하고神
人과同住하는劉婆의處所를問하여 翌朝에三人이劉
婆의處所를간즉 劉婆가맛춤있는故로 人事를하고
來意를말할때 婆는欣然히말하면서 지금은「성팔」
이가不在하니 黃昏에다시오라고하드랍니다 그때
서 三人은다시 夕飯後에薄暮되기를기다려 劉婆
의게간즉 劉婆가門을열고 迎接하드랍니다 그래서
房에들어가본즉 아모도없고 劉婆一人뿐이燈불도
아주켜지안했드랍니다 三人이劉婆를向하여對坐한
즉 劉婆의身邊으로서 소래있서하는말이 「나는성
팔이오 여러본오시느라고수고했습니다 어찌扶仁

寺앞에서 오시는것을보았습니다 져서뜻하여려본
과同行했지마는 여러본은모름되다 그리고手巾을
일으켰지요 그手巾은扶仁寺앞길가에서 나무하든
兒孩가주서가졌습니다 라고하드랍니다 그리한소
리를듣고 아모리모라하야도 아모身形은보이지안
료 音聲만들리며 더욱놀랄만한한일은三人이昨日을
며에 楊渾虛氏가果然手巾을일흔손잡이있드랍니다 그
러나 三人은조금도부성치안코欣然히人事하고「성
팔」과對話했드랍니다 먼저劉婆의音聲을들었지만이
번「성팔」의音聲은 宛然히男子音聲으로 語調가매
우清雅하야 普通사담과갓고 室外까지도無難히들
리져드랍니다 이때까지劉婆는 아모말씀시안져
있고「성팔」과對話하는대 말하다가흔득하는말이
「여보재살오는가 오물은무엇있는가 할에 뒤물이
어門밖으로서대답하는소리로 「아모일도업섯네 하
는音聲이 아즈」성팔」의音聲과다르게용장하야 씩
센듯하드랍니다 그때서 一同이눈을물러 四方으로
보아도 身形은보이지안코 宛然히「성팔」의聲해
안는形迹이있는듯하드랍니다 三人의개인事하라고
「성팔」이介紹하야 同이各其人事하니 神의對

답이 「나는천왕이라하는데 이近處에있서 把溪寺
境內를守護합니다」라고한다 그래서 三人은다시
「천왕」과도여러가지談話하고 그뿐아니라천왕
이「성팔」과對話하는것도應酬하듯했다 이때까지房안
에燈불은켜지안했스나 窓外에는月色이隱隱하야 房
안이그리어졸지아니함으로 그대도안져이야기하다
가 夜深하야告別하고 明夕에다시기를預約하고
宿所에와서 아부리생각하야도 不無議는정말不思議
드랍니다 翌日밤에다시간즉 이번은「성팔」이가다
른부엌으로머부러이야기하고있는데 對話者의音聲
을들은즉 「천왕」의音聲도아니고 宛然히小兒의音
聲과가치 柔弱한女子의音聲이라 三人의생각에또
무슨神이있는가하고 「성팔」의재뜻기를「여보재치
말하는이는누구요」한즉「성팔」의대답이 「이어나히
八歲되는女子인데 그일흔은「대순」이요 將來나와
結婚코자하는故로 나의안해을시다 本來慶北安東
郡一直面(洞名은忘却)에사는 張某의女兒로서 兩
年前에死亡한안데 每月兩次(初一日)冥府點考에
來往하다가 서로알게되야 나를依託하고있습니다」
하드랍니다 하도異常하야 劉婆의身邊과 房안을살